

▶ 달러/원 주간 전망

• 확신없는 시장과 빅 이벤트... 다시 찾아온 변동성 경계령

서울, 6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일본 통화정책회의 등 굵직한 대외 이벤트에 영향 받으며 변동성을 대거 키울 전망이다.

주간 예상 환율 범위는 1,355-1,400원이다.

예상을 크게 넘어선 미국 5월 고용지표 결과에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는 크게 치솟았다. 이로 인해 금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심리는 몹시 취약해졌다.

디스인플레이션과 고용 냉각 추세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못하다 보니 달러는 잠시 되밀리는 듯하다가도 강한 회복 탄성을 재확인시키고는 한다.

6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은 경제 전망과 위원들의 금리 점도표에 보다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 3월 대비 경제 성장률은 더 오르는 한편,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당초 3차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금리 인하 횟수 또한 기존 3회보다 더 줄어들지 주목된다.

6월 연준 회의에 대한 시장 평가가 조금이라도 매파적일 경우 글로벌 달러는 들쭉날쭉 테고 그렇다면 달러/원은 1,400원대를 향해 공격적인 태세로 돌변할 수 있다. 최근 시장심리는 원화가 약세 재료에 유독 취약하다는 쪽을 잔뜩 기울어져있다.

한편, 주 후반에는 일본은행(BOJ) 정책회의도 대기하고 있다. BOJ가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가이던스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 움직임을 견인하는 주요 재료는 미국 국채 금리지만, BOJ 결과 따라 엔의 자체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화가 달러 이외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약세인 데다, 환율이 상승한다 해도 이전처럼 고점 대기 매물이 매섭게 나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 외인 주식 매매 동향 따라 원화는 쉽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이 같은 원화 변동성에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굵직한 대외 이벤트를 전후해 글로벌 달러와 위험선호 심리 조정 여부 따라 원화는 변동성을 키우는 동시에 단기 방향성에 대한 윤곽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빅 피겨'인 1,400원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될지 주목되는 한 주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인플레이션 지표와 FOMC 결과

연준은 6월12일까지 이틀 간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지만 아직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지 않는 상태다.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 성명 발표 몇 시간 전에 발표된다.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더 나타나면 특히 경기 약화 조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고무된 월가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트레이더들은 올해 통화 완화 가능성을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7월 인하 가능성도 낮게나마 점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부진하면 투자자들이 동요해 몇 달 동안 잠잠했던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지표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 BOJ 테이퍼링 가능성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6월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 이미 강력한 힌트를 던졌다.

그는 지난 6일 BOJ가 수십 년간의 부양책을 종료함에 따라 여전히 대규모인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3월 금리 인상 후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이틀 간의 회의 후 장기적인 양적완화의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미즈호증권은 월 매입 규모를 약 5조엔으로 1조엔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채권시장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OJ와 정부는 엔 약세가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임금 상승의 사이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테이퍼링이 엔을 뒷받침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다.

⊙ G7 정상회의

13-15일 이탈리아 바리에 모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5-16일 평화회담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진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이은 것이다.

동결 자산의 수입으로 지원되는 대출은 우크라이나에 최대 50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장 유력한 옵션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한편 신에너지자동차 등 "과잉 생산"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수출력 증가에 대한 G7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英 임금 데이터와 금리 인하 전망**

영국 투자자들은 임금 압력이 영란은행의 단기내 금리 인하 전망을 높일 만큼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지 가능하기 위해 11일 노동시장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너스를 제외한 주당 평균 소득은 3월까지 3개월 동안 연 6% 증가했는데, 4월 최저임금이 9.8% 인상돼 증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까지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11월까지 금리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12일 발표될 4월 GDP 데이터는 1분기 0.6%의 견조한 성장 이후 성장세 둔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S&P는 PMI 데이터가 2분기 0.3% 성장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이 7월4일 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를 발표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이 리시 수낙 총리의 보수당에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노동당이 최근 영국의 저조한 성장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 **스위프트노믹스**

음악계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이어지며 이제 유럽이 그의 덕을 볼 차례다.

바클레이스는 이번 투어가 영국 경제에 거의 10억파운드의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티켓 소지자의 지출은 영국 평균 외출 비용의 1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연구소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투어로 5월9일부터 13일까지 파리에서 BofA 해외 카드의 사용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에서는 진정한 승자는 스위프트라고 생각한다. 타임지는 스위프트가 에라스 투어를 통해 억만장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스위프트플레이션'과 '스위프트노믹스'를 논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인플레이션, 연준 회의가 방향성 제시할 듯

뉴욕, 6월10일 (로이터) -

투자자들은 이번 주 인플레이션 수치와 연방준비제도 회의를 면밀히 주시하며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연착륙 기대감이 여전히 적당한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이다.

연준이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입어 S&P500지수는 연초 이후 12%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상반된 신호를 보냈다.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지만, 앞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경기가 둔화됐음을 보여줬고 1분기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다.

12일 발표되는 5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가가 통제된 가운데 만족스러운 성장세를 보이는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날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계획에 대한 연준의 시그널도 주시할 것이다.

폴 크리스토퍼 웰스파고투자연구소 글로벌 시장 전략 헤드는 "시장은 확실함을 원하며, 연준이 12월이나 1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장기간의 고금리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로이터 조사 예상치 18만5,000명을 훨씬 넘어선 27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표 발표 후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9월 인하 가능성이 고용지표 전의 약 70%에서 약 55%로 하락했다.

고용지표 호조는 5월 미국 제조업 활동이 두 달 연속 위축되었다는 3일 발표 등 경기 둔화를 시사한 이전 지표들에 반하는 것이다.

S&P500지수의 신기록 행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등 몇몇 대형 기술 및 성장주에만 상승세가 집중되고 나머지 시장은 미온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에드 클리숄드 네드데이비스리서치 수석 미국 전략가는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P500 편입종목들의 주가수익비율 중앙값이 장기 중앙값에 도달하려면 31% 하락해야 하고, 20년 평균에 도달하려면 19%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울 디아즈 노던트러스트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담당자는 "사람들은 이 시장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좁게 상승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 호조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주가를 계속 지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순이익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약 8.1% 상회했다.

솔리타 마르첼리 UBS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미주 CIO는 지난주 메모에서 "우호적인 거시 여건, 견조한 수익 성장, 인공지능 순풍, 연내 연준의 피벗 가능성 등이 미국 증시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최근 연말 S&P500 목표치를 현재 지수보다 3% 상승한 5,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 지표가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후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전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토론은 1988년부터 대통령 토론을 관리해온 초당파적 대통령토론위원회가 제안한 9월16일보다 거의 3개월 빠른 6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그레이스 리 컬럼비아스레드니들인베스트먼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로 인해 2024년 대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년보다 일찍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6월10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6월10일(월)

- ⊙ 금융감독원: 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 (10: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12:00)

6월11일(화)

- ⊙ 관세청: 6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KDI: KDI 경제동향(2024. 6) (12:00)
- ⊙ 한국은행: 2024년 제10차(5.23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22:30)

6월12일(수)

- ⊙ 통계청: 2024년 5월 고용동향 (08:00)
-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 (09:30)
- ⊙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 (10:00)
- ⊙ 한국은행: 2024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4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감독원: 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 ⊙ 한국은행: 부총재 FSB 총회 (12~16일, 캐나다 토론토)

6월13일(목)

- ⊙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본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10:00)
- ⊙ KDI: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12:00)

6월14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한국은행: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1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06월10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5월		3.1%
06월10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4월	1737.6B	3,398.8B
06월10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수정치	1분기	-1.9%	-2.0%
06월10일	23:00	미국	고용 추이	5월		111.25
06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5월	7.2%	7.2%
06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5월	1,255.0B	730.0B
06월10-17일		중국	FDI (YTD)	5월		-27.90%
06월11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5월		89.70
06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MM	5월	0.4%	0.3%
06월12일	10:30	중국	PPI YY	5월	-1.8%	-2.5%
06월12일	10:30	중국	CPI YY	5월	0.3%	0.3%
06월12일	20:00	미국	모기자마켓지수	6월7일 주간		180.4
06월12일	21:30	미국	CPI MM, SA	5월	0.1%	0.3%
06월13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4월	0.2%	0.6%
06월1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3일 주간		229k
06월13일	21:30	미국	PPI MM	5월	0.1%	0.5%
06월14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SA	4월		-0.1%
06월14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5월	0.1%	0.9%
06월14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5월	-0.1%	0.5%
06월14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6월	72.0	69.1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10일 (월)

- ⊙ 휴장국가: 중국, 대만, 홍콩, 호주 등

6월11일 (화)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시작 (12일까지)

6월12일 (수)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13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13일 오전 3시30분)

6월13일 (목)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14일까지)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주최 행사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의 대화 주제 (14일 오전 1시)

6월14일 (금)

- ⊙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발표, 우에다 가즈오 총재 기자회견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아이오와 농업국 경제서밋 좌담회 참석 (15일 오전 3시)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전미경제학회 써머프로그램 50주년 기념식서 연설 (15일 오전 8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외환제도 개선 세부안) - RFI 거래 참여 확대 위해 보고의무 부담 완화... “모니터링 문제 없다”

서울, 6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시장 연장과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의 거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환당국은 실수요 확보와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안을 4일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그간 해외외국환취급업무기관(RFI)의 외환거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혀 온 외환거래 및 포지션 현황 보고 의무를 일부 유예하거나 제재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당초 RFI가 보고하는 총 6개 보고서 중 일중 포지션현황과 일중 외환거래현황에 관한 보고는 제외된다.

한편, RFI의 원화차입 잔액(매월 보고), RFI FX거래(T+2), RFI 외환파생거래 건별 잔액(매월) 보고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기간은 당초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RFI의 원화 차입·상환 내역(매월)에 대해서는 일중 원화차입 보고와 제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RFI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일 보고 항목은 T+2일로 기간을 늘리고, NDF포지션을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보고는 이미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RFI는 비거주자의 고객 신원과 국적 등에 관해 법적 제약 때문에 당국에 보고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당국은 국내 수탁은행이 보고하는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RFI 거래가 본점으로 집중될 경우 본점에만 모든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RFI 보고 의무가 완화된 데 대해 당국은 RFI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라며, 보고 자체를 받지 않기로 한 항목은 다른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재가공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 체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외환당국자는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보고를 통해 이중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RFI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제도 개선 세부안) - 국제통합계좌 통한 원화 결제 허용... RFI, CRS 거래도 가능

서울, 6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은 국제통합계좌를 통한 장외 채권거래시 원화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제통합계좌 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당국은 국제통합계좌를 통한 장외 채권거래시 통합계좌 내 원화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국은 유로클리어 등의 '확인'을 전제로 비거주자 간 레포 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원화로 지급받은 국제이자의 원화 상환을 허용하는 등 이자상환 및 보상지급에 관해 원화 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외환당국자는 "국제통합계좌를 허용하기로 한 이상 유로클리어 내 비거주자들 간의 원화 결제를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외환시장 실수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는 FTSE러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기 위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제통합계좌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채권투자자의 안정적인 환헤지 필요성을 감안해 RFI의 비거주자 대상 CRS 거래도 허용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당초에 RFI는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거래만 가능했다.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제도 개선 세부안) - RFI, 거주자 대상 환전 불허... 대행기관과 직거래 원칙 유지

서울, 6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은 RFI 업무 범위와 원화 직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국은 글로벌 외환거래 모델인 CBM(Centralised Booking Model)을 토대로 지점과 법인이 실제 거래 귀속주체인 Booking entity(BE) 장부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지점별로 RFI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단순 영업행위인 대고객거래만 수행하는 주체인 Sales entity(SE)는 SE목록을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RFI의 추가 등록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CBM 하에서 본점 장부로 거래할 경우 BE 이름의 업무용 원화계좌와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고의무 역시 BE로 집중된다. 이로 인해 본점 장부로 거래하는 은행간 거래와 영업 전담 지점의 원화계좌 개선과 RFI 등록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원칙적으로 RFI 간에는 외국환중개사를 통해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지만 동일그룹 RFI 간의 직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 RFI, 거주자 대상 환전 불허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지침에 따르면 RFI는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RFI로 등록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지점은 거주자 물량 거래를 제한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즉,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이 국내기업의 물량을 야간 시간대에 직접 거래하거나, 가격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예외 인정을 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다만, 서울 본점 장부를 운영하는 딜러가 서울 본점의 장부로 포지션 거래를 하거나, 이종통화의 대고객 거래를 커버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 본점과 RFI로 등록한 현지법인과 지점이 별도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상호간 직거래는 허용된다.

한편, 당국은 RFI가 대행기관하고만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원칙도 유지하기로 했다. 동일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지점이 RFI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직거래를 불허한다.

외환당국자는 "대행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 등록해야지만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대행기관은 계좌 관리도 하고 RFI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행기관에 혜택을 줘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행기관이 꼭 하나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행기관으로 등록만 하더라도 직거래 혜택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종합) - MSCI, 韓 공매도 접근성 악화... 시장 접근성 등급 개선 없어

서울, 6월7일 (로이터) -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대해 악화하고 있다(deterioration)면서 시장접근성 등급에 개선이 없다고 평가했다.

MSCI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 공매도 항목에 대해 '플러스(주요 이슈 없음, 개선 가능)'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변경했다.

한국은 지난 11월 모든 국내 상장 증시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배당절차 개선 등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장 개혁 조치와 관련해서 MSCI는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SCI는 영문 공시 정보 공개는 개선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항상 이용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자유화에 대해서는 시장 제도 개선 조치 발표에도 제도가 충분히 시행된 이후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사전등록 없이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도입된 조치가 국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완전히 시행되고 테스트되어야만 관련 시장 접근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사이클에서 한국의 접근성 등급과 관련해 개선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시장 접근성 평가가 연례 시장 분류 평가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일 발표되는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추진에 힘입어 6월 선진지수 워치리스트 재등재를 기대했지만, 2023년 평가 대비 2024년 개선 사항은 전무했고 오히려 공매도 제약 관련 부정 평가가 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선진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이 어려워졌단 의미이고 선진지수 편입 역시 길고 녹록지 않은 작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 - 환율 하락 기대 낮지만 '빅 피겨' 저항 유효

서울, 6월3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시장전문가들은 6월 달러/원 환율 하단이 강하게 지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빅 피겨' 저항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46.5-1,398.6원으로 제시됐다.

강달러 기조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은 크진 않지만, 향후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결과 따라 달러 방향이 변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난달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를 소화하면서 강달러 압력이 한 차례 완화됐던 만큼 경제지표가 일관되게 둔화세를 보일지 확인하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이벤트는 단연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회의다.

ECB 6월 금리 인하가 폭넓게 예상되는 가운데 로이터 조사에서는 9월과 12월에도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됐다.

미국에 앞서 금리인하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벤트로 ECB 정책회의가 손꼽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경로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면서도 글로벌 달러 반응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유지했다.

글로벌 위험선호와 원화의 상관관계가 둔화되는 한편, 위안 약세 기조가 원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됐다.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조가영 과장	1357	1390
우리은행	이창섭 과장	1350	140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360	1405
DGB대구은행	이용주 차장	1340	1395
IBK기업은행	이철우 과장	1350	1400
KDB산업은행	임준영 과장	1340	1400
NH농협은행	전병철 과장	1360	142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40	1385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45	1400
메리츠증권	박수연 연구원	1360	1400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310	1390
평균		1346.5	1398.6

((Yena.Park@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②) - 환율 하락 기대 낮지만 '빅 피겨' 저항 유효

서울, 6월3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시장전문가들은 6월 달러/원 환율 하단이 강하게 지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빅 피겨' 저항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46.5-1398.6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조가영 과장(신한은행)

"6월 중에도 미국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정도의 경제지표 둔화나 이벤트가 없어 보여 달러/원은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 보일 것. 6월 초 ECB에서 금리 인하할 경우 글로벌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 강도는 크지 않을 것. 6월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CPI가 한번 더 둔화되는 흐름 보인다면 달러/원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고, FOMC에서 구체적인 금리인하 경로 확인된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누그러질 가능성 있음."

- 예상 거래범위 : 1357-1390원

▲ 이창섭 과장 (우리은행)

"6월은 ECB 금리인하와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강달러 우위임. 국내 주식 외인 매도세가 최근 원화 약세에 큰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달러/원 1400원 위는 당국 부담이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4월과 같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약달러를 이끌 수도 있을 것."

- 예상 거래범위 : 1350-140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미국 국채 금리 강세와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금리 정책 속도 차이로 글로벌 달러 강세 유효할 것. 유로존 및 캐나다의 선제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수급상으로도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증시와 외인 순매도로 달러/원 하단은 탄탄. 무엇보다 이렇다할 네고가 부재한 점도 환율 하단을 지지. 미국 경제지표가 금리인하를 지지할 만큼 유의미하게 반전되지 않는 한 1300원 중반대는 강한 지시선을 형성할 것. 다만 1400원대 레벨 부담감에 상단은 제한될 것."

- 예상 거래범위 : 1360-1405

▲ 이용주 차장 (DGB대구은행)

"금리는 약세고, 그 이외 자산시장은 롱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외환시장에서는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금리 여건에 변화가 생길 만한 지속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돼야할 것이므로 시장은 데이터 의존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6월에는 ECB와 FOMC가 핵심 변수. 달러/원 1385원 이상은 분명 다른 영역으로 현재로서는 이 레벨 이상은 과도하는 생각."

- 예상 거래범위 : 1340-1395원

▲ 이철우 과장(IBK기업은행)

"FOMC 및 고용 및 물가지표 통해 추세 확인하고자 할 것. 다만, 물가는 작년 대비 역기저 효과로 드라 마틱한 하락이 진행되기 힘들 것이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스탠스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달러/원 환율 하단 지지 전망. ECB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시되나 지난주 발표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금리 인하에 부담. 이미 금리 인하 선반영된 가운데 금리 인하와 매파적 발언 이어진다면 유로 강세에 따른 달러 하락보다는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피벗 실망감에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으로 달러, 유로는 동반 상승할 수도 있어 보임."

- 예상 거래범위 : 1350-1400원

▲ 임준영 과장(KDB산업은행)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에 달러 강세 지속될 전망. 또한, ECB 6월 금리인하시 미국과 이외 주요국간의 금리차 확대도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듯. 다만 하반기 BOJ의 조기 통화정책 정상화 프라이싱과 반도체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상단을 제한할 듯."

- 예상 거래범위 : 1340-1400원

▲ 전병철 과장(NH농협은행)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순매도 물량 확대로 환율 상승할 것으로 전망. 다만, 그 외 달러 약세 분위기와 1400원 개입 경계감은 상단 제한하는 요인."

- 예상 거래범위 : 1360-142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달러와 원화 모두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기 보다는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1300원대 중후 반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예상 거래범위 : 1340-1385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6월에는 ECB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며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돌입할 것이 나, 호주나 미국 등은 특유의 물가 산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대선 전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는 2~3개월간 더 지표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5월에 둔화된 미국 경제지표가 연속성을 가질지 확인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2분기 중 환율은 박스권 움직임 하에서 강달러 분위기 유지할 것."

- 예상 거래범위 : 1345-1400원

▲ 박수연 연구원(메리츠증권)

"6월 주된 매크로 이벤트는 ECB와 FOMC. 6월 ECB는 첫 인하에 나서고 FOMC 점도표에서는 3회에서 2회 금리인하로 변화 예상. 해당 스탠스 차이와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며 원화는 절하될 전망. 다만 이미 외환시장에 어느정도 선반영됨에 따라 1400원 이상으로 원화 절하 가능성은 제한적."

- 예상 거래범위 : 1360-140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미국 국채 금리와 맞물린 연준 통화정책 경계, 달러 강보합 기조가 지속될 전망. 무역수지 흑자 지속되고, 최근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확산돼도 원화 흐름과는 디커플링. 즉 과거에 잘 들어맞던 주요 변수와의 설명력이 크게 약화된 것. 유의미한 환율의 방향성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큰 틀에서 달러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쉽지 않음. 최근 역외에서 위안 약세 기조가 돋보이며 달러/위안은 재차 7.3을 바라보고 있음. 4월 중순 달러/위안 장중 고가 7.28 부근 당시 달러/원은 1400원 터치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하면 향후 위안 움직임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예상 거래범위 : 1310-1390원

((Yena.Park.thomsonreuters.com; 82-2-3704-5671;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 @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